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47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10월 26일

인도네시아 기업인 해외 진출 문턱 낮아진다… APEC 카드 발급 6개월에서 '7영업일'로 단축

이민국 총국, 전면 디지털 전환… 기존의 수기 방식에서 모바일 가상 카드로 대체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이동과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 산하 이민국 총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ABTC, 현지명 KPP APEC) 발급 서비스를 전면 디지털화하며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민국 총국은 최근 전자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ABTC 서류 검증 및 프로파일링 절차를 수수료 결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과거 수기 방식으로 진행될 당시 발급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단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 따라 신청자는 전용 디지털 플랫폼(abtc.imigrasi.go.id)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250만 루피아의 신청 수수료 역시 통합 결제 시스템(Simponi)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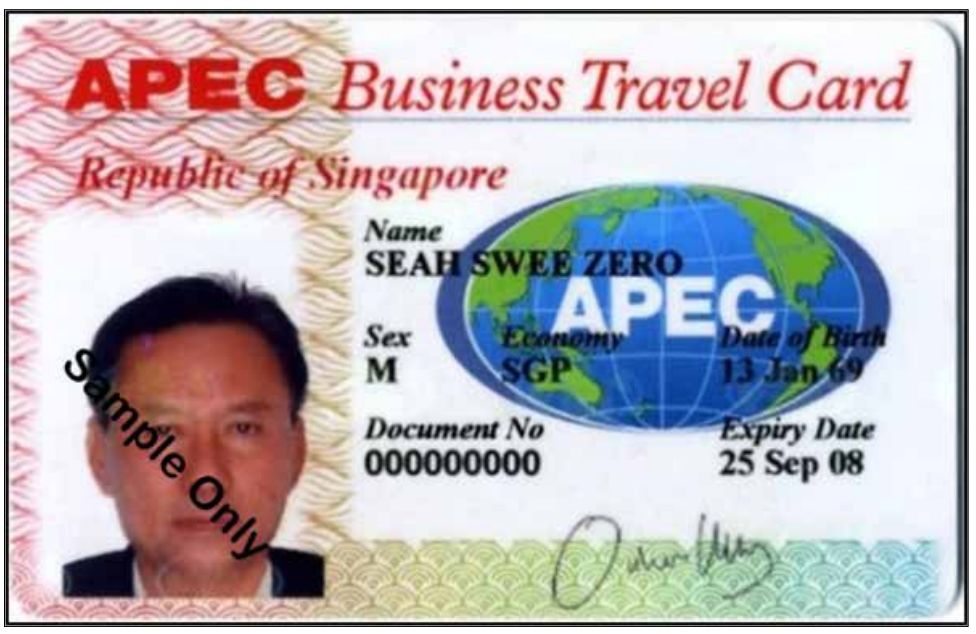
승인이 완료된 카드는 기존의 실물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가상(디지털) 카드 형태로 이민국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된다. 가상 카드는 회원국 승인 상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진위 확인 기능이 강화돼 보안성과 현장 사용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코 부디안토 이민 비자 및 여행문서 담당 국장은 지난 2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포럼 그룹 토론(FGD)에서 "계정 생성부터 가상 카드 발급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행정 절차가 더욱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며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서비스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국제 시장 확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제정된 이민·교정부 장관령 제4호에 따르면, ABTC 발급 대상은 국내외 기업인(주주, 이사, 감사)과 정부 관료는 물론 전문의, 건축가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카드 소지자에게는 APEC 회원국 내 반복적인 무비자 입국 혜택과 각국 국제공항의 전용 출입국 심사 통로(Fast Track)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헨다르삼 마란토코 이민총국장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가치로 '이용자 편의'와 '시간 효율성'을 꼽았다. 그는 "기업인들이 공항에서 한 시간씩 줄을 서는 대신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이점"이라며 "정확한 시간 관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와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동 편의성 강화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투자부(BKPM)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의 FDI 규모는 900조 9,000억 루피아(약 534억 달러)에 달했다.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ABTC 활성 사용자 수도 2025년 1,279명에서 2026년 1,814명으로 4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APEC 경제권의 카드 소지자 수 역시 58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ABTC, 현지명 KPP APEC)

향후 이민국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와 협력해 ABTC 서비스 개선이 실제 투자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측정할 계획이다. 헨다르삼 총국장은 "ABTC의 디지털 생태계 통합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넘어, 아태 지역 내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인도네시아 경찰청-교통부, 2026-2027 연말연시 및 르바란 대비 전방위 교통 보안 공조 체제 가동

- 10월 21일 자카르타 경찰청 본청서 고위급 회담… 육·해·공 교통 안전 총력 대응
- 인접한 양대 대이동기 앞두고 조기 협력 착수… 상습 정체 구간 매핑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Polri)과 교통부(Kemenhub)가 다가오는 2026년 성탄절 및 2027년 신년(나따루·Nataru) 연휴와 2027년 최대 명절인 르바란(아이둘 피트리·Idul Fitri) 기간을 앞두고 국가적 차원의 교통 안전 및 치안 서비스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1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교통부에 따르면, 두디 뿌르와간디(Dudy Purwagandhi) 교통부 장관과 수유디 아리오 세또(Suyudi Ario Seto) 국가경찰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핵심 지휘부는 자카르타 경찰청 본청(마베스 폴리) 루빠따마 회의실에서 고위급 전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번 조기 공조 회담은 연말연시 휴가철과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연이어 이어지는 특수한 일정에 대비해 기획됐다. 양 기관은 단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상·해상·항공 전 교통 부문에 걸친 사전 대비 태세를 조기에 확립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조기 대응 통한 리스크 최소화… '상습 정체 매핑' 등 현장 대응 고도화

이날 회의에서는 ▲육·해·공 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전국 주요 교통 인프라 안전 관리 ▲교통사고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수유디 아리오 세또 경찰청장은 본격적인 귀성 및 연휴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철저한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수유디 청장은 "나따루와 르바란처럼 국가적 대이동 행사가 연속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양 기관의 협업 체제를 한 단계 더 격상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에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현장 치안 및 보안 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표준 작전 지침을 정비할 수 있으며, 장기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교통국(코를란따스)과 교통부는 실무 차원의 즉각적인 협업에 착수,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항만, 공항 주변의 상습 정체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교통 혼잡 지도 작성(매핑)'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회 도로 확보, 가변 차로 운영 등 맞춤형 교통 통제 전략을 수립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전직 국가마약청(BNN) 청장을 역임한 수유디 청장은 "명절과 연휴 기간의 교통 문제는 매년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현안"이라며 "조기 공조 체계를 통해 주요 귀성·휴양 경로에서의 현장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 기관은 획일적인 통제 대신 각 지방청 및 현장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며, 지역별 교통 흐름과 기상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치안·보안 유지 방식을 적용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교통부 "경찰과의 확고한 파트너십 재확인"… 전문 인재 양성 등 협력 다각화

교통부 역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찰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장기적인 정책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나따루와 르바란을 비롯한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교통 안전 관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경찰청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두디 장관은 아울러 "이번 방문은 향후 현장 실무를 이끌어갈 교통부의 신임 간부들을 경찰청 수뇌부에 소개하고 상호 신뢰를 다지는 친선 도모의 장이기도 했다"고 회담의 의의를 전했다.



두디 뿌르와간디(Dudy Purwagandhi) 교통부 장관과 수유디 아리오 세또(Suyudi Ario Seto) 국가경찰청장이 2026년 성탄 교통작전을 협의 (21/10/2026). (Sumber: Tangkapan Layar Instagram @divisihumaspolri)

양측은 기존의 현장 교통 관리 수준을 넘어, 양 기관 간 인적 자원(HR)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교류 등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전문 인력 간의 유기적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비상시 위기 대응 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디 장관은 "이동 안전 관리라는 당면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협력 확대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교통부는 이처럼 촘촘한 사전 기획과 조기 공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다가오는 2026-2027 연말연시와 2027년 르바란 기간 동안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질서 있고 막힘없는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조코위 전 대통령, 프라보워 대통령 75번째 생일 축하… "국정 이끌 힘과 장수 기원"



조코위 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이 후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제8대 대통령의 75번째 생일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와 축복의 뜻을 전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생일(10월 17일) 이튿날인 지난 18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게재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 각하의 7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알라께서 늘 건강과 행복, 장수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샬라(신의 뜻대로), 각하께서 국가를 이끄는 데 늘 힘과 열정을 얻으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시지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어, 전·현직 국가원수 간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드러냈다.

1951년 10월 17일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신질서' 시대의 경제 설계자로 저명한 스미트로 조조하디쿠수모 전 장관의 아들이다. 군과 기업, 정계를 두루 거친 정통 정치인으로, 수차례의 대선 도전 끝에 지난 2024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0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과 함께 공식 취임해 국정을 이끌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대통령, MSCI 증시 강등 경고에 강경 대응… “두려워하지 않는다”

- MSCI,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 강등 가능성 시사… 대규모 외인 자본 유출 위기
- 프라보워 “외압에 굴복 안 해… 국가 이익 수호할 용기 있어” 정면 돌파 천명
- 자카르타 종합지수(IHSG), 이틀간 15% 폭락 · 루피아화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패닉’

[자카르타]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외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우려 속에서도 주권과 국익을 앞세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21일(수),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열린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국무회의 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외적인 경제적 위협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외적으로 여러 도전 과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MSCI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이 우리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는 MSCI를 향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힌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설 용기가 있고, 국익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발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증시의 위상이 격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나왔다. MSCI가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지위를 신흥시장에서 프런티어 마켓보다도 투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립시장’으로 강등할 경우, 글로벌 패시브 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실제로 MSCI의 경고 메시지가 시장에 전해진 직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는 단 2거래일 만에 15% 이상 폭락하며, 전 세계를 덮쳤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지난 금요일 기록된 IHSG의 장중(intraday) 하락 폭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외환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0.6% 하락하며 달러당 18,000루피아 선을 위협받았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인 수준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21일(수),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국무회의 본회의를 주재. (Youtube.Sekretariat Presiden)

MSCI 측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재분류 및 강등 여부와 관련하여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공식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늦어도 2027년 6월 30일 이전에는 최종 결정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MSCI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주식과 관련된 일부 지수 변경 및 편입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증시의 침체는 극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IHSG는 무려 38.38% 급락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자본시장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자금 규모만 92조 900억 루피아(약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IHSG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등 주요 32개국 비교 지수 가운데 올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증시의 부진은 인근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호조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같은 기간 태국의 SET 지수는 연초 대비 23.5% 급등했으며, 싱가포르의 STI 지수 역시 약 17% 상승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내 인접국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며 순항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단독으로 심각한 자본 유출과 지수 급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은 민족주의적 결집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규격과 투명성, 유동성 기준을 요구하는 국제 신용평가 및 지수 산출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프라보워 정부 집권 2주년… 거대 연합 정당성 변호부터 글로벌 지수사(MSCI) 향한 초강경 대응까지

- 2026년 10월 21일 대통령궁서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본회의 국무회의 주재
- '비대 내각' 논란 일축… "3억 인구 · 유럽 크기 영토 감당할 통합의 불가피한 선택"
- 식량 · 에너지 완전 자립 로드맵 가속… 2030년까지 바이오 연료 기반 '수입 제로' 추진
- MSCI의 시장 지위 강등 위협에 직격탄… "인도네시아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맞아 안팎의 위협과 비판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 의지를 천명했다. 대규모 정치 연합과 방대한 내각 구성에 대한 비효율성 지적을 일축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불거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시장 재분류 압박에 대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며 단호한 주권주의적 노선을 분명히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21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본회의 국무회의(Kabinet Merah Putih·적백 내각)를 주재하며,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임기 후반부를 이끌 핵심 전략 기조를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21일(수),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국무회의 본회의를 주재. (Youtube.Sekretariat Presiden)

■ "유럽 크기 영토 통솔에 통합 불가피"… 거대 연합 및 비대 내각 정면 반박

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 중 하나는 프라보워 행정부 출범 이래 줄곧 제기되어 온 '비대 내각'에 대한 공개적 변호였다.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정권을 떠받치는 거대 연합으로 인해 내각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했고, 이에 따라 행정적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 연합이 방대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국정 실패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치 세력을 결집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비대한 내각이라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하고 영토의 물리적 면적은 유럽 대륙 전체에 맞먹는다"며, 단일 중앙정부 체제에서 이러한 대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통합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견과 건전한 경쟁은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가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친구 1,000명도 부족, 적은 1명도 많다"… 경제 안보 연계한 실용 외교 역설

프라보워 대통령은 심화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패권 경쟁에 대한 경계감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국제 정세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 패권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세계는 물리적 전면전뿐 아니라 무역 전쟁, 경제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더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군사력뿐 아니라 통화, 관세,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가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음을 짚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자유적극(bebas-aktif)'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정 권력 블록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철학을 "친구는 1,000명도 부족하지만 적은 단 한 명도 많다"는 격언으로 요약하며,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적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철저히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기반한 선린 정책(good neighbor policy)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가 통합의 가치를 역설하며 "우리는 종교, 민족, 언어가 모두 다르지만, 차이는 곧 풍요로움"이라며 "나의 정치는 국가 통합의 정치이며, 거대한 국가적 번영을 위해 사소한 차이를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30년 에너지 완전 자립 목표… B50 및 E50 단계적 도입으로 연료 수입 종식

국정의 핵심 과제로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가 거듭 부각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부 공급망 충격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자급자족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5~2026년 극심한 기후 변동과 가뭄 속에서도 정부가 식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방어해 냈다고 자평하며, 자국 내 생산 기동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디젤 'B50' 상용화와 함께 바이오에탄올 확대 시간표를 제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에탄올 10% 혼합(E10) 도달을 기점으로 약 2년 주기로 E20, 나아가 2030년경에는 E50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B50과 E50의 결합이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해외에서 석유 제품(BBM)을 수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에너지 독립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불의 고리(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지리적 숙명으로 인한 지진, 화산, 산불(Karhutla) 등 자연재해의 상시적 위협을 상기시키며 북수마트라 등 재난 취약지의 위기 대응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 MSCI 강등 우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직격… 필요시 추가 예산 절감 단행 시사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장 공격적인 수사의 발언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향했다. 최근 국제 벤치마크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인도네시아 증시의 분류 등급을 기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는 MSCI를 포함한 여러 외부 요소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MSCI에 분명히 밝힌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러한 압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평가 기준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주권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더 큰 규모의 예산 절감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 조직의 기강 확립과 희생정신을 당부했다.

■ "이제 막 전반전 끝났다"… 각료들에 '비타민 처방' 농담 곁들이며 후반전 총력전 독려

집권 2년 차를 넘긴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 상황을 5년 임기라는 장기 레이스의 '전반전'으로 규정했다. 경제 체질 개선, 재난 복구, 거버넌스 개혁 등 여전히 산적한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며 안주를 경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아직 5년 임기 중 절반을 갓 지났을 뿐이며 결코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배석한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을 향해 "장관, 차관, 기관장들이 후반전에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좋은 비타민을 챙겨주라. 보건부 장관이 모른다면 내가 직접 비타민 목록을 적어주겠다"고 농담을 던져 회의장의 긴장을 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주년 국무회의 연설이 대내적으로는 연합 세력의 결집을 유지하면서 정권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원·에너지 패권과 금융 주권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입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프라보워 특유의 '강한 인도네시아' 구상을 여실히 드러낸 분수령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프라보워 대통령, 함발랑 사저서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접견… 다자주의·글로벌 현안 논의

[자카르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서자바주 보고르군 함발랑 사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발표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방인 기간 동안 프라보워 대통령의 사저에 머물렀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도착 당일 사저 입구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직접 맞이하며 각별한 예우를 표했다. 현장에는 각 지역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도열해 환영 인사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환영식 이후 이어진 공식 양자 회담에는 양측 주요 인사가 대거 배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아르마나타 나시르 외무장관과 수기오노 인적개발·문화조율(PMK) 장관이 자리했다. 유엔 측에서는 현 유엔 사무총장 물 특사이자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인 레트노 마르수디와 기타 사바르왈 주(駐)인도네시아 유엔 상주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현안을 점검하고, 다자주의 체제를 통한 평화와 안정 유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정책 리더십과 더불어, 국제 평화 유지 및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기여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오는 12월 임기 종료를 앞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건넸으며, 일정을 마친 뒤 뉴욕 본부로 귀환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공식 만남은 지난 2025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이후 약 1년 만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0월 18일 함발랑 사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 개최. (Dok. Sekretariat Presiden)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은 인도네시아와 유엔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다자간 소통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말레이시아 의원, 인도네시아 산불 연무에 격분… 프라보워 대통령에 '자바어' 직격탄

- 칼람 살란 의원, 의회서 이례적 자바어 연설… "산소 공급 운운하며 농담거리 삼지 마라"

- 매년 반복되는 국경 간 연무 피해 지적… ASEAN 차원의 공동 대응 및 법 집행 촉구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발 대규모 산림·농지 화재로 인한 국경 간 연무(Haze) 재난이 또다시 확산되자,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히 한 연방 하원의원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모어(母語)인 '자바어'로 직접 일침을 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박 베르남 지역구 출신의 칼람 살란(Kalam Salan)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인도네시아발 연무 피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칼람 의원은 "인도네시아의 다수 자바인이 말레이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의회의 양해를 구한 뒤, 이례적으로 자바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님, 산림 화재 연기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기침과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학교가 휴교하고 관광 산업이 위축되며 농가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피해의 대상이 말레이시아 국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칼람 의원은 "말레이시아 농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들 역시 연무로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도 못 하는 처지인데,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칼람 살란(Kalam Salan) Malaysia 의원 (YouTube.Parlemen Malaysia)

아울러 인도네시아 측 일각에서 제기된 '산소 공급'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바콤(Bakom)의 샤항다 나잉골란 수장은 평소 인도네시아 숲이 말레이시아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칼람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산소를 준다는 핑계로 이 심각한 사안을 농담거리나 우스갯소리로 만들지 말라"며 "말레이시아의 나무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산소도 배출하지 못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을 향해 "산불을 즉시 진압하고, 양국 국민이 매년 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하며,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칼람 의원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행동도 주문했다. 그는 2026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필리핀을 중심으로 국경 간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위성 기반 조기경보 체계 구축 ▲역내 긴급 대응팀 설립 ▲산불 대응 공동 법 집행 강화 ▲이탄지 복원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역내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탕 루파르 지역구의 모하맛 샤피잔 켑리(Mohamad Shafizan Kepli) 의원 역시 동남아 연무오염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메커니즘을 통한 일관된 외교적 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GV | 2026년 10월 20일 ~ 26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10월 21일



*액션
*한 장리우드 주연 배우의 커리어가 범죄자에 의해 파멸이 심하게 망가지면서 좌절된다. 기적적으로 얼굴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최첨단 치료를 받은 후, 그는 복수를 결심한다.

10월 24일



*음악
*좋아하는 HYBE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를 독특한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즐기는 경험.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보자.

10월 25일



*음악
*BTS 라이브 부앙이 처음으로 남미에서 생중계된다. 이 대형 콘서트는 경기장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담아낸다.





커밍 쑨 in CGV

10월 30일



*드라마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은퇴자가 인기 패션 회사의 인턴으로 다시 일하기로 결심한다. 유명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

10월 31일



*음악
*BTS의 라틴 아메리카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형 콘서트로, 브라질 경기장의 열기와 에너지를 가득 담아낸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싱가포르 GIC·테마섹, '인니 증시 강등 압박' 의혹 전면 부인

싱가포르의 양대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가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압력을 행사해 인도네시아 증시의 지위 강등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했다.

앞서 무하마드 루프트피(Muhammad Lutfi) 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싱가포르 투자기관들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공포를 조성해 국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루프트피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GIC와 테마섹이 MSCI를 압박해 인도네시아 증시를 '신흥국(Emerging Market)'에서 '독립 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대규모 매도세를 유발해 자산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매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GIC 소속 관계자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Logo

이에 대해 GIC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GIC 대변인은 자사의 투자 결정이 지수 분류나 특정 시장에 대한 거시적 전망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GIC 측은 "투자 대상인 개별 기업과 자산의 펀더멘털을 고려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투자해 온 장기 투자자로서 앞으로도 위험 대비 양질의 기회가 있는 곳에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마섹 역시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 와이 홍 테마섹 아태지역 글로벌 투자 총괄은 "기관 차원이든 소속 개인이든, MSCI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락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프리 헨드릭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 사장과 프리데리카 위디사리 데위 금융감독청(OJK) 위원장 등 주요 규제 기관 책임자들은 루프트피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MSCI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지수 재분류 검토가 자리잡고 있다. MSCI는 주식 소유 구조의 투명성 부족과 불공정 공조 매매 관행 등 시장 적합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인도네시아를 신흥국에서 독립 시장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늦어도 2027년 6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정부, '산불 비판 콘텐츠 삭제 요청' 의혹 전면 부인… 빅테크에 '알고리즘 투명성'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메타(Meta), 틱톡(TikTok)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관련 비판 콘텐츠의 삭제나 노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아울러 논란의 원인을 플랫폼 측의 불투명한 운영 체계로 지목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무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emkomdigi)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통신디지털부는 산불 관련 정보의 유통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삭제나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명은 최근 현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산불 관련 현장 고발 게시물의 조회수가 급감하거나 검색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섀도밴(Shadowban·그림자 차단)' 현상을 겪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무티아 장관은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현장 상황과 정보는 정부의 실질적인 화재 진압 및 재난 대응 체계 가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정보라면 정부는 어떠한 비판과 정책 제언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또한 공공 소통의 차원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산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살을 플랫폼 기업으로 돌리며 알고리즘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플랫폼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특정 정보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티아 장관은 "이용자는 자신이 소비할 정보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특정 빅테크 기업의 자의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을 향해서도 "정보 접근권은 민주적 사회의 기본 권리인 만큼, 거대 플랫폼들이 알고리즘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함께 감시와 요구의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메우티야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

한편, 통신디지털부는 메타나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산불 관련 게시물의 부당한 노출 제한이나 임의 삭제 조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플랫폼 측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사례를 통신디지털부 민원 창구에도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안내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루훗 DEN 위원장, 프라보워 대통령에 부패 정의 재검토 건의…"국가 손실, 곧바로 부패 범죄 아냐"

- "국가 재정 손실 요건, 국제 기준과 달라… 국영기업 경영 및 투자 위축 초래"
- 프라보워 대통령, 연구 필요성 공감… UNCAC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강조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 Ketua Dewan Ekonomi Nasional Luhut Binsar Pandjaitan (Foto: BPMI Setpres)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이 국가 재정 손실을 부패 범죄의 직접적 구성 요건으로 보는 현행 법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루훗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열린 회동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부패 범죄 정의에 관한 DEN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부패 범죄 대응 체계를 지난 2006년 비준한 유엔 반부패 협약(UNCAC)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루훗 위원장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해당 연구의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동의가 즉각적인 법 개정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루훗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가 20년 전 비준한 유엔 헌장상 부패의 기본적 정의는 뇌물 수수(bribery)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재정 손실 자체를 부패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인도네시아의 부패 척결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법(1999년 법률 제31호 및 2001년 개정 법률 제20호)은 최소 30가지 유형의 행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핵심 구성 요건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UNCAC이 규정하는 부패 범죄는 공무원 뇌물 수수, 횡령, 알선수재, 직권남용, 자금세탁 및 사법방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루훗 위원장은 국가 재정 손실을 부패 범죄 범주에 포함하는 현행 제도가 비즈니스 환경과 공공기관의 경영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영기업 자산 관리 및 투자를 총괄하는 다난타라 투자청(Danantara)의 활동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사업 위험과 범죄적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상업적 투자와 경영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손실 위험이 수반된다"며 "상업적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까지 국가 손실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면 국영기업 경영진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루훗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주요 경제 지표와 관련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향후 모든 정책 결정이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DEN 차원의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MSCI 안 두려워" 발언에 금융당국 진화 나서… OJK "도전 의도 아냐, 신흥시장 유지 총력"



프리데리카 위다야사리 데위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OJK) 이사회 의장

[자카르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을 향해 "인도네시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해당 발언이 글로벌 기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며, 정부는 여전히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지위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리데리카 위다야사리 데위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OJK) 이사회 의장은 2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은 MSCI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프리데리카 의장은 "대통령의 언급은 인도네시아가 대외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용기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차원"이라며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수 제공업체 때문에 떠밀려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월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체적인 시장 개선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취임 1주년 국무회의에서 "MSCI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려 한다"며 "인도네시아 국민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코 주눅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해 시장의 파장을 낳았다.

MSCI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지위를 기존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소유 구조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 의혹, 규제 집행의 비일관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은 2027년 4월 말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같은 해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이 독립시장으로 강등될 경우 대규모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출이 불가피하다. 이에 OJK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가 이미 MSCI 측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규정 집행(Enforcement)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OJK는 지난 16일, DSSA·BREN·CUAN 등 주요 상장사의 부정 거래 및 공모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2조 1,000억 루피아(약 1,800억 원) 상당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리데리카 의장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은 여타 국가 대비 건전한 편이나 규정 집행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기 투자처로 거듭나 신흥시장 지위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뇌물 비리 의혹’ 누스론 와힛 토지공간장관, KPK 소환 불응 속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출국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지역 내 부동산 개발사 ‘PT 수마레콘 아궁(PT Summarecon Agung Tbk)’의 건물사용권(HGB) 취득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누스론 와힛(Nusron Wahid) 토지공간장관 겸 국가토지청장이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소환 조사를 연이어 불응한 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이민교도부 산하 출입국관리총국에 따르면, 누스론 장관은 최근 바탐(Batam)을 경유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헨다르삼 마란토코(Hendarsam Marantoko) 출입국관리총국장은 이날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스론 장관이 수행원들과 함께 바탐을 거쳐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공무를 수행한 사실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입국 당국은 누스론 장관의 현재 귀국 여부 및 정확한 입국 시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헨다르삼 총국장은 “현재까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누스론 장관에 대한 공식적인 출국금지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스론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KPK의 1차 참고인 소환에 내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이어, 재소환 통보를 받은 15일에도 해외 공무 출장을 사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누스론 장관의 측근 인사들을 포함해 전·현직 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총 8명이 이미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입건돼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수장의 연이은 불출석을 두고 수사 회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사회연대(MAKI)의 보이아민 사이만(Boyamin Saiman) 코디네이터는 “누스론 장관은 KPK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14일 바탐을 거쳐 해로로 싱가포르에 들어간 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로 이동했다”며 구체적인 경로를 폭로했다. 이어 “해당 출장은 일정이 급조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식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이아민 코디네이터는 19일 오후 누스론 장관이 자카르타 토지공간부 청사에 복귀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KPK가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PK는 즉시 누스론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강제 구인 등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스론 와힛(Nusron Wahid) 토지공간장관 겸 국가토지청장 Menteri Agraria Tata Ruang (ATR)/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BPN), Nusron Wahid.(Dok. Kementerian ATR/BPN)

한편 KPK는 현재까지 누스론 장관에 대한 강제 구인 여부 등 공식적인 추가 조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PDIP, ‘정당 학교’ 일반에 전격 개방… 젠지(Gen Z) 정치 참여 확대 견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당인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PDIP)이 청년 세대, 특히 제너레이션 Z(Gen Z)를 겨냥해 당의 핵심 정치 교육 기관인 ‘정당 학교(Sekolah Partai)’의 문호를 일반 대중에 전격 개방했다. 그동안 내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폐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 시간) 남부 자카르타 렌텡 아궁 소재 PDIP 정당 학교 단지에서 ‘PDIP 정당 학교 청년 프로그램(Muda-Mudi Sekolah Partai)’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모인 대학생 약 100명과 자카르타 수도권(자보데타벡)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청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코마루딘 와투분(Komarudin Watubun) 정당 학교장을 비롯해 MY 에스티 위자야티 청년·스포츠 담당 위원장, 유케 유리케 부회계담당, 시깃 K. 유니안토 회계담당, 니다 지드니 파라디사 총서기 등 당 중앙당(DPP) 핵심 간부들이 대거 집결했다.



코마루딘 와투분(Komarudin Watubun) PDI-P 정당 학교장Sumber Foto: Kompas/Tria Sutrisna)

코마루딘 학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정당 학교가 특정 엘리트 계층이나 기존 당원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며 “이러한 배타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 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개방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코마루딘 학교장은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명백히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젊은 층이 정치에 무관심해져 국가의 역사와 국정 운영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도자 육성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역설했다. 그는 “모든 성취에는 엄격한 과정이 따르며, 하늘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면서 “국정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충분한 준비와 역량을 갖춰야 하며, 억지춘향식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마루딘 학교장은 수카르노(Bung Karno) 초대 대통령의 사상과 메가와티 여사의 투쟁 정신 계승을 언급하며 “이번 개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당원 모집이 아니다. 청년들이 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국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니다 지드니 파라디사 정당 학교 총서기 역시 “이번 청년 프로그램은 당의 교육 기능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치와 국가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건강한 토론을 펼치길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MSCI, 인도네시아 '독립시장' 강등 검토… 1,000억 달러대 자금 엑소더스 '초비상'

- 신흥시장에서 프런티어 마켓 건너뛰고 최하위 범주로 이동 가능성 시사
- 골드만삭스 "패시브 자금 최대 56억 달러 유출… 액티브 매도 압력 가중"
- 루피아화 사상 최저치 근접 · 국채 금리 급등 등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 확산
- 거래소, 일일 가격제한폭 7%로 축소 긴급 처방… 정부 "금융안정회의 소집"

[자카르타=한인포스트]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을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지위에서 제외하고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전격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글로벌 자금 유출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루피아화 환율 급등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외환·채권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개장 초반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가 약세를 보이며 다시 4,000선으로 하락했다.

◇ '신흥국' 탈락 위기…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거래 패턴이 발목

MSCI 지수는 전 세계 연기금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널리 추종하는 벤치마크 지수다. 한 국가의 증시 분류가 하향 조정되면 이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불가피하며,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심리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MSCI 측이 인도네시아 증시를 겨냥해 칼을 빼 든 배경에는 고질적인 주식 보유 투명성 부족과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 MSCI는 이미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을 '프런티어 마켓(Frontier Market)'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1차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가에서 MSCI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취한 후속 개선 조치들이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지어 현재 자본시장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프런티어 마켓조차 적절치 않으며 시장 접근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된 국가들을 묶는 '독립시장' 범주로 직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독립시장으로 강등될 경우, 인도네시아 증시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기반의 모든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 1,000억 달러 자금 유출 가시화… 16년 만의 최악 엑소더스 직면

MSCI의 이 같은 초강경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마주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전격 제외될 경우 기계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패시브 추종 자금만 최대 56억 달러(약 100조 8,000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액티브 자금 역시 인도네시아 관련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80억 달러(약 144조 루피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액티브 투자자들이 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포지션 정리에 나설 경우, 직간접적으로 시장을 이탈하는 전체 위험 자금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란 비관론마저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위협이 이미 가속화된 외국인 이탈 국면에서 닥쳐왔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6년 들어서만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이미 48억 8,000만 달러(약 87조 8,400억 루피아) 규모를 순매도했다. 이는 최근 16년 사이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의 자본 유출 기록이다. MSCI의 강등 경고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단순한 규제 개선 약속만으로는 재분류를 피할 수 없다"며 "공약된 개혁이 일관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개선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글로벌 시장에 즉각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루피아화 사상 최저치 근접… 국가 신용·금융 안정성 연쇄 위협

자본시장의 혼란은 즉각 외환 및 채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카르타 외환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달러당 1만 8,000루피아 선을 위협하며 지난 6월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달러당 1만 8,190루피아)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자본 유출 가속화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싱가포르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게리 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우려는 시가총액 약 5,000억 달러(약 9,000조 루피아) 규모의 주식시장에 그치지 않는다"며 "주식 매도세가 루피아화 가치 급락과 국채 금리 급등을 촉발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다. 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을 야기해 실물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증권거래소 하한폭 7%로 긴급 축소… 정부 "KSSK 긴급회의 소집"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규제 당국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는 2026년 10월 19일 자로 일일 주가 자동하락허용범위(ARB) 하한을 기존 15%에서 7%로 대폭 축소하는 긴급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BEI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쏟아지는 각종 정보와 충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적인 심리적 패닉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경제의 펀더멘털을 차분히 재평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같은 날 자카르타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내 증시의 급락세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KSSK) 특별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번 주 내로 종합적인 대책과 시장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MSCI의 강등 움직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본시장 개혁 조치와 인도네시아의 견고한 실물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MSCI의 부정적 평가는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걷히지 않는 한, 당국의 행정적 미봉책만으로는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의 운명은 향후 정부의 규제 정상화 의지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여부에 전적으로 좌우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MSCI와 긴급 회동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 '고강도 제도 개혁안' 내놓는다

- 1% 이상 지분 보유 주주의 계열사 관계 공시 의무화 추진
- 지분 집중도 높은 'HSC 종목', 종합주가지수(IHSG) 산정에서 전면 제외
- 신흥시장 지위 강등 위기 속 자본시장 투명성·건전성 강화 총력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과의 고위급 회동 직후, 자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규제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기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한 단계 낮은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026년 10월 19일, 제프리 헨드릭(Jeffrey Hendrik)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사장은 자카르타 BEI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SCI 측과의 온라인 화상 회의를 마친 사실을 밝히며,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이니셔티브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이번 긴급 회의는 앞서 지난 10월 16일, MSCI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국가 분류를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제안함에 따라 마련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MSCI 지수에서의 강등 위기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이번 접촉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제프리 사장은 회견에서 "지난 금요일 MSCI의 발표에 따라 오늘 MSCI 측과 심도 있는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하면서도, "다양한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양측 간 기존 협약과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 세부 사항이나 최종 결론을 대중에 상세히 공개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비록 회의의 구체적 대화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으나, BEI가 회의 직후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온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양측 간 상당한 수준의 위기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가 준비 중인 두 가지 신규 이니셔티브는 주주 투명성 제고와 대표 주가지수의 대표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의 '계열사 관계 현황' 정보를 공시 항목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의 단순 지분율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특수관계인 및 계열 구도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시장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이른바 '고지분 집중도(High Shareholding Concentration, HSC)' 범주에 속하는 종목들을 인도네시아 대표 주가지수인 종합주가소득지수(IHSG) 산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제프리 사장에 따르면 현재 HSC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전체 IHSG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이른다. 이들 종목은 소수 주주에게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 유통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소규모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왜곡되거나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 이미 IDX30, LQ45, IDX80 등 거래소 내 주요 우량 지수 구성 종목에서 배제되어 있던 HSC 종목들을 이제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IHSG에서까지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제프리 사장은 "HSC 주식을 지수 산정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해당 주식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 조치는 오직 해당 종목들의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 IHSG 전체에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수 산출 방식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국제 탄소거래소(Bursa Karbon Internasional Indonesia)를 공식 출범

이어 "이 두 가지 신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보다 무결하고 투명한 시장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적용의 구체적인 효력 발생 시점과 세부 시행 세칙은 정리되는 대로 시장에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EI는 이번 조치 외에도 시장의 효율성과 선진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앞서 거래소는 주식 거래의 하한가 규정을 기존 50루피아에서 1루피아로 전면 개편하여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거래소 당국은 향후에도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의 성명 전면 공개 ▲세분화된 투자자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상장사의 최소 유동주식비율(free float) 요건 강화 ▲지배구조(거버넌스) 평가 기준 엄격화 등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MSCI의 시장 강등 경고라는 초유의 난제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이번 고강도 체질 개선 카드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신흥시장 지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루피아화 가치 급락…
싱가포르 달러·말레이시아 링깃 대비 역대 최저치 경신



uang ringgit Malaysia. (Foto. Tya Haninpost)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유출의 여파로 주요국 통화 대비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약세 흐름은 물론, 동남아 주요 인접국 통화에 대해서도 사상 최약세 기록을 갈아치웠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외환 스팟(현물) 시장 마감 기준 싱가포르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은 전일 대비 45.86루피아(0.33%) 상승(루피아화 가치 하락)한 14,141.19루피아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링깃 역시 링깃당 6.87루피아(0.16%) 오른 4,423.10루피아로 장을 마쳤다. 반면 태국 바트화 대비 환율은 1.08루피아(0.20%) 내린 535.85루피아를 나타냈다.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의 방어선도 무너졌다. 이날 스팟 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루피아(0.21%) 오른 달러당 18,060루피아로 마감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기준환율(Jisdor) 또한 전날(18,022루피아)보다 61루피아(0.34%) 상승한 18,047루피아를 기록하며 가파른 통화 약세를 반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75%로 동결 결정을 내린 이후, 루피아화가 이틀 연속 약세를 지속하며 여타 아시아 통화 대비 두드러진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신흥국 시장 내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데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통화 가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은 다음 달부터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유동성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시장 직접 개입, 투자자 유인책 마련, 외환 및 자금시장 고도화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을 가동하기로 했다.

데스트리 다마얀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정례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지속해서 최적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적절한 시장 조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 2028년까지 연장… 시장 충격 최소화 나서

- 식음료 및 화장품 등 2028년 10월까지 유예… 의약품은 최대 2034년까지
- 경제조정부 "생태계 준비 상태와 규제 실효성 고려한 조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던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을 오는 2028년 10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6년 10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산업계의 준비 부족과 제도적 실효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조정부는 할랄 제품 보장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 시행령 제42호'를 개정해 인증 의무화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소(Susiwijono Moegiarso) 경제조정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할랄 생태계의 전반적인 준비 상태와 사업자들의 규제 적응 수요, 법적 확실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할랄음식

식음료·화장품 2028년까지 유예… 의약품은 단계적 적용

개정안(제160조)에 따르면, 도축업을 제외한 일반 식음료 및 관련 서비스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 시행일은 2028년 10월 18일로 조정됐다. 영세 및 소상공인(UMK)이 취급하는 식음료, 도축 가공품 및 도축 서비스 역시 2028년 10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 식품, 음료 및 도축 가공물은 각국과의 할랄 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 추진 경과 등을 반영해 2028년 10월 18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된다.

소비재 및 헬스케어 품목도 유예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2026년까지 유예될 예정이었던 천연 의약품, 유사 의약품(구아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 조작(GMO) 제품 등 주요 소비재는 2028년 10월 17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긴 유예 기간이 유지된다. 일반의약품 및 제한적 일반의약품은 2029년 10월 17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2034년 10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시행령 정비 및 규제 완화 병행… 산업계 "숨통 트여"

정부는 이번 일정 조정에 맞춰 정부 시행령 제42호의 하위 시행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할랄 제품의 반입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일부 규제(2026년 제4호)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한 연장이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할랄 제품 보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원활한 교역 환경과 할랄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한 대(對)인도네시아 수출 기업과 현지 제조업체들은 할랄 인증 취득 및 공급망 재정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유예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품목별 단계적 의무화가 최종 확정된 만큼 기업들은 남은 기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MSCI 회동 직후 전격 제외된 80개 종목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가 종합주가지수(IHSG) 산출 방식에서 '고지분집중(HSC·High Shareholding Concentration)' 종목 80개를 전격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과의 긴급 회동 직후 나온 조치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MSCI는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을 '독립 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며 IHSG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에 BEI 지도부는 지난 10월 19일 MSCI 측과 긴급 회동을 갖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지수 개편안이 도출됐다.

제프리 헨드릭(Jeffrey Hendrik) BEI 사장은 자카르타 거래소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건전한 주가지수를 제공하기 위해 고지분집중(HSC)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을 IHSG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현재 HSC로 분류된 80개 종목이 전체 IHSG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달한다. HSC는 특정 소수 주주나 상호 연계된 세력에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된 종목을 의미한다. 유통 주식(free float) 비율이 극히 제한적인 탓에 소수 세력에 의한 가격 조작이나 통제된 거래,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프리 사장은 "지수 산출 제외가 해당 종목들의 상장폐지(Delisting)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주식들의 정규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주가 변동이 대표지수인 IHSG에는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배구조 집중도가 높은 종목들이 가진 잠재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IHSG가 인도네시아 경제와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EI는 앞서 IDX30, LQ45, IDX80 등 거래소 내 주요 우량 지수에서도 HSC 종목들을 배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 범위를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IHSG)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최근 최저 주가 한도(Rp 50) 조정, 지분 소유권의 투명성 제고, 유동 주식 비율 요건 강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이날 발표와 함께 IHSG 산출에서 제외되는 HSC 80개 종목의 명단을 시장에 공개했다. 이번 고강도 조치가 MSCI의 관찰 대상국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Logo

IHSG에서 제외될 HSC 주식 80개 종목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PT Sawit Sumbermas Sarana Tbk (SSMS)
PT Golden Eagle Energy Tbk (SMMT)
PT Bank Maspion Indonesia Tbk (BMAS)
PT Tower Bersama Infrastructure Tbk (TBIG)
PT Cita Mineral Investindo Tbk (CITA)
PT J Resources Asia Pasifik Tbk (PSAB)
PT Bali Towerindo Sentra Tbk (BALI)
PT Bank Mayapada Internasional Tbk (MAYA)
PT Citra Putra Realty Tbk (CLAY)
PT Akasha Wira International Tbk (ADES)
PT Temas Tbk (TMAS)
PT Bank Mestika Dharma Tbk (BBMD)
PT Indonesian Paradise Property Tbk (INPP)
PT Sarana Meditama Metropolitan Tbk (SAME)
PT Diamond Food Indonesia Tbk (DMND)
PT Dayamitra Telekomunikasi Tbk (MTEL)
PT Enseval Putera Megatrading Tbk (EPMT)
PT Sillo Maritime Perdana Tbk (SHIP)
PT Duta Pertiwi Tbk (DUTI)
PT Bank of India Indonesia Tbk (BSWD)
PT Royalindo Investa Wijaya Tbk (INDO)
PT Bhineka Inovasi Ketahanan Energi Tbk (BIKE)
PT Multi Spunindo Jaya Tbk (MSJA)
PT Charnic Capital Tbk (NICK)
PT Steady Safe Tbk (SAFE)
PT Berdikari Pondasi Perkasa Tbk (BDKR)
PT Intermedia Capital Tbk (MDIA)
PT Saranacentral Bajatama Tbk (BAJA)
PT Bukit Darmo Property Tbk (BKDP)
PT Alakasa Industrindo Tbk (ALKA)
PT Asia Sejahtera Mina Tbk (AGAR)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BNII)
PT Prima Andalan Mandiri Tbk (MCOL)
PT MSIG Life Insurance Indonesia Tbk (LIFE)
PT Golden Flower Tbk (POLU)
PT Pelayaran Nasional Ekalya Purnamasari Tbk (ELPI)
PT Hoffmen Cleanindo Tbk (KING)
PT Ancara Logistics Indonesia Tbk (ALII)
PT Hotel Fitra International Tbk (FITT)
PT Yupi Indo Jelly Gum Tbk (YUPI)
PT Perdana Bangun Pusaka Tbk (KONI)
PT Metropolitan Kentjana Tbk (MKPI)
PT Cemindo Gemilang Tbk (CMNT)
PT Sinar Mas Agro Resources and Technology Tbk (SMAR)
PT Citra Marga Nusaphala Persada Tbk (CMNP)
PT Famon Awal Bros Sedaya Tbk (PRAY)
PT Maha Properti Indonesia Tbk (MPRO)
PT Global Digital Niaga Tbk (BELI)
PT Bank Mega Tbk (MEGA)
PT Golden Energy Mines Tbk (GEMS)
PT Multipolar Technology Tbk (MLPT)
PT Siantar Top Tbk (STTP)
PT Bank SMBC Indonesia Tbk (BTPN)
PT Krom Bank Indonesia Tbk (BBSI)
PT Siloam International Hospitals Tbk (SILO)
PT FAP Agri Tbk (FAPA)
PT Jaya Sukses Makmur Sentosa Tbk (RISE)
PT Soho Global Health Tbk (SOHO)
PT Allo Bank Indonesia Tbk (BBHI)
PT Pradiksi Gunatama Tbk (PGUN)
PT Bank Ina Perdana Tbk (BINA)
PT Bank Permata Tbk (BNLI)
PT Sejahteraraya Anugrahjaya Tbk (SRAJ)
PT Ekamas Mora Republik Tbk (MORA)
PT Indoritel Makmur Internasional Tbk (DNET)
PT Bayan Resources Tbk (BYAN)
PT DCI Indonesia Tbk (DCII)
PT Habco Trans Maritima Tbk (HATM)
PT Delta Giri Wacana Tbk (DGWG)
PT Kota Satu Properti Tbk (SATU)
PT Mahkota Group Tbk (MGRO)
PT Transcoal Pacific Tbk (TCPI)
PT BSA Logistics Indonesia Tbk (WBSA)
PT Satria Mega Kencana Tbk (SOTS)
PT Rockfields Properti Indonesia Tbk (ROCK)
PT Abadi Lestari Indonesia Tbk (RLCO)
PT Ifishdeco Tbk (IFSH)
PT Dian Swastatika Sentosa Tbk (DSSA)
PT Barito Renewables Energy Tbk (BREN)
PT Samator Indo Gas Tbk (AGII).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증시 당국, MSCI와 긴급 화상회의… '독립시장' 강등 검토 배경 확인 착수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이 자국 주식시장의 지위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긴급 논의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와 금융감독청(OJK)은 19일 오후 MSCI 측과 화상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분류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개시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MSCI가 최근 인도네시아 증시의 시장 지위 변경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독립시장으로의 강등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초래하고 시장 신인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현지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프리 헨드릭 BEI 사장은 이날 BEI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과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발표"라며, "MSCI와의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프리 사장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들과 향후 실행 계획을 전달하는 한편, MSCI가 자본시장 질적 개선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프리 사장은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MSCI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은 존중한다"면서도 "그간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혁 진척 상황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물론 MSCI 자체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이날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MSCI 측이 제시한 주요 고려 사항과 향후 대응 방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회의 결과를 시장에 발표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인도네시아 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산정 위한 '적정생계비(KHL)' 추정 중… 인상 폭은 미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7년 주별 최저임금(UMP) 결정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적정생계비(KHL) 추정치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최종 산출 공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시엘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26년 10월 21일(수) 자카르타 경제조정부에서 열린 부처·기관 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와 노동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UMP 결정을 위한 KHL 추정치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시엘리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KHL 추정치를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표는 인도네시아 전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적정 생계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야시엘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 (Foto: Tangkapan layar Youtube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야시엘리 장관은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한 평가와 추정을 거쳐 대략적인 KHL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도 주별 수치를 도출했던 만큼 이번에도 면밀한 데이터 검토가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HL 추정치 산정과 더불어 임금 산출 공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국가삼자협력기구(LKS Tripartit) 및 국가임금위원회(Depenas)와 함께 임금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HL의 법적 위상과 표본 조사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야시엘리 장관은 "관련 법적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삼자협력기구와 KHL 조사 및 법적 위임 사항을 논의하고, 이후 국가임금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노동보호법의 기준을 엄격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최종 UMP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 주 임금위원회(Depprov)의 기술적 권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각 주지사가 최종 승인·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KHL 산출과 노·사·정 삼자 협의를 거쳐 2027년도 최저임금안의 가이드라인을 언제쯤 공식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시, 3분기 지역 수입 45조 루피아 육박… 예산 집행 가속화 총력

- 9월 말 기준 지역 수입 44조 9,800억 · 지출 40조 4,000억 루피아 기록
- 쁘라모노 주지사 "예산 규모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기준"
- 대중교통 · 복지 중심 집행 성과… 빈곤율 사상 첫 3%대 진입 등 경제지표 '청신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DKI 자카르타 주정부의 2026년 3분기 지역 수입이 45조 루피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연말 예산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주요 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DKI 자카르타 주지사는 21일 시청에서 열린 '2026년 3분기 지역수지예산(APBD) 집행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9월 30일 기준 지역 수입 집행액이 44조 9,8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연간 목표치인 71조 4,500억 루피아의 62.9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역 지출 집행액은 총예산 한도(74조 2,900억 루피아)의 54.39%인 40조 4,0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역 자체 수입(PAD)이 39조 3,300억 루피아로 목표의 68.20%를 달성하며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지역 조세 수입이 34조 5,800억 루피아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 흐름을 보였다.

쁘라모노 주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단순한 수치상의 예산 소진율보다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PBD는 단순한 지출 규모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한 경제 활성화, 주민 수요 부응 여부가 최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각 행정 부서에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조기 집행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정부 예산은 교육, 보건, 사회 안전망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부문에 집중 투입됐다. 3분기까지 교육 품질 향상 프로그램에 4조 9,900억 루피아, 주민 건강 증진 사업에 4조 2,800억 루피아가 각각 집행됐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분야 예산은 8,290억 6,000만 루피아가 투입돼 70.42%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에는 2조 1,600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트랜스 자카르타와 MRT, LRT 등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3억 6,840만 명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 범위는 93%까지 확대됐다. 주정부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무료 탑승 수혜 계층을 기존 15개에서 구직자와 장애인 동행인을 포함한 21개 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 주요 거시경제 및 민생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는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52% 성장했으며, 9월 인플레이션율은 2.71%로 전국 평균(3.28%)을 밑돌았다.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DKI 자카르타 주지사

특히 사회 복지 측면에서는 지난 3월 기준 빈곤율이 3.96%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업률 역시 지난 5월 기준 5.79%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정부는 직업 훈련과 취업 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중화요리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가야성에서 준비한

알곤이 짬뽕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곤이
깊고 얼큰한 해물 짬뽕



예약 문의
081295094658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印尼 학생·시민사회, 프라보워-기브란 출범 2년 맞아 대규모 시위… “국정 전반 총체적 실패” 5대 요구안 발표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학생회와 시민사회 연대체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환경, 경제, 민주주의 등 5대 분야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대학교(UI), 반둥공과대학교(ITB), 가자마다대학교(UGM) 등 전국 주요 명문대 학생회로 구성된 ‘국민 주권 수호 위원회(이하 사다르·SADAR)’와 시민사회 연대는 자카르타 도심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현 정권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다르 측은 이번 시위에 앞서 수마트라부터 파푸아까지 전국 56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와 내각의 국정 운영이 실패했다’고 평가해 민심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산림 파괴 및 산불 문제에 대한 우려가 83.5%로 가장 높았으며, 생필품 가격 급등(71.1%), 부패 및 국가 권한 남용(70.6%), 교육비 부담(67.4%), 표현의 자유 제한(62.7%) 등이 주요 실정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공식 천명했다.

첫째,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와 홍수를 국가적 재난으로 공식 지정하고 주민 건강권을 보장할 것과 환경 파괴를 유발한 기업의 처벌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둘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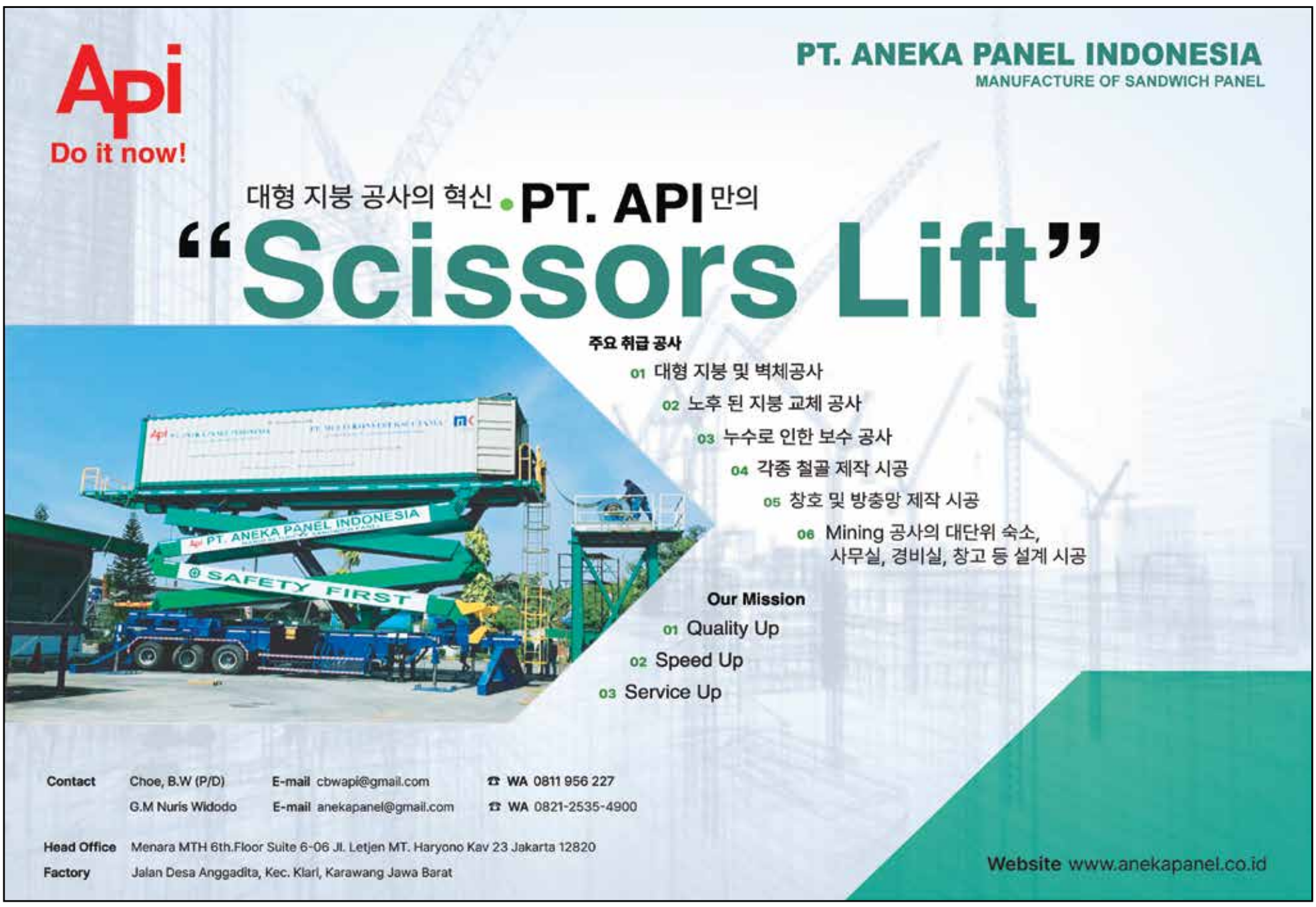
이어 셋째,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넷째, 정권 내 만연한 부패·권력 남용·족벌주의(KKN) 관행을 엄단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높은 교육비와 의료비, 공공서비스 비용을 인하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24-2029년 임기 프라보워 기브란 적백내각 Menteri Kabinet Merah Putih 취임 2024.10.20. 사진 내각부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학생 대표단은 “출범 2년을 맞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는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쇄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저항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ESENTED BY btn

그때 그 노래, 다시 만나는 우리들의 청춘!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

잊고 지냈던 친구, 첫사랑, 그리고 그 시절의 노래들...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합니다!

7080 The Best Memory

건아들
젊은 미소

남궁옥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현 숙
정말로 / 요즘 여자 요즘 남자

홍서범
MC & OXEN 80

권성희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조갑경
바보 같은 미소

7 NOV SAT
19:00
OPEN GATE 18.00

VENUE:
THE BALLROOM AT
PLAZA SENAYAN (LT. P5)

OXEN'80 복은 '80

WITH 3 PROFESSIONAL BACKING VOCALIST

SUPPORTING THE NEXT GENERATION
RP 200,000,000
SCHOLARSHIP SUPPORT FOR KOREAN STUDENTS

LUCKY DRAW
RP 100,000,000 IN TOTAL PRIZES

PROMOTER BY APGM
OFFICIAL ENERGY DRINK HONGSAM BALL
EVENT ORGANZER SINERGI SU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경찰, 산불·토지 화재 98건 공식 수사 착수… “외국 세력 연루 정황 포착”



Kapolri Jenderal Polisi Dr. (H.C.) Suyudi Ario Seto, S.I.K., S.H., M.Si.,.(Istimewa)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사건에 외국 세력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19일(현지 시간), 기업 연루 의혹이 제기된 98건의 산불 및 토지 화재 관련 경찰 보고서를 모두 정식 수사 단계로 격상하여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이 전담하고 있다.

수유디 경찰청장은 이날 중부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열린 산불 대응 관련 영토 소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심층 조사 중인 98건의 사건 가운데 외국 세력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체가 외국인투자(PMA) 기업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성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외국 세력의 개입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루된 세력이 인접 국가 출신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수유디 청장은 “인접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해 이번 사안이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경찰 당국은 외국 세력의 구체적인 개입 범위나 기업 소유주의 직접적인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사 당국은 현재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유디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특정해 공식 입건할 것”이라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이민국, 러시아 ‘용병 모집’ 등 인신매매 차단 위해 사이버 순찰 강화

인도네시아 이민국(Ditjen Imigrasi)이 자국민(WNI)이 해외 용병으로 동원되는 등의 인신매매(TPPO) 피해를 막기 위해 출국 초기 단계부터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이 러시아 등 외국 군대에 합류하도록 모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비군사 직종의 일반 취업 제안으로 알고 출국했다가, 현지에 도착한 뒤에야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사기 수법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다르삼 마란토코 인도네시아 이민국장은 지난 20일(화) 자카르타 중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헨다르삼 국장은 “피해자 대부분은 군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하며, 일단 현지에 도착하면 귀국이 매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하류)가 아니라 모집 및 서류 절차, 출국 단계(상류)에서부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용병 모집과 불법 이주노동자(PMI) 송출 등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이버 순찰 확대 ▲국가 간 법 집행 공조라는 세 가지 전략적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민국 주도 마을(Desa Binaan Imigrasi)’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방어력을 높인다. 인신매매 고위험 지역에 마을 지도 이민국 직원(Pimpasa)을 배치해 불법 모집의 위험성과 안전한 해외 취업 절차를 교육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무분별한 해외 취업 시도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식량 안보 활동 등을 개발해 청년층에게 국내 생계 대안을 제공하는 경제적 자립 방안도 병행한다.

둘째,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 채널을 통한 불법 구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고수익과 출국 지원 등을 미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합법성이나 계약 조건이 불투명한 광고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민국은 인터폴과 협력해 온라인상의 인신매매성 취업 권유를 조기에 파악해 차단할 방침이며, 국민들에게도 해외 취업 시 회사 정보와 근로계약서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국경을 넘는 엄정한 법 집행과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이민국은 자국민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는 현지 브로커나 에이전트 등 가해자로 연루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헨다르삼 국장은 “헌법상 자국민을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 보지만,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진행 중이며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 네트워크의 배후가 주로 해외에 머물며 현지 하수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민국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분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철저한 증거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이민국 로고 Logo Kementerian Imigrasi dan Pemasyarakatan (Kemenimipas) RI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그린피스 활동가 11명, 인도네시아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기습 시위 중 연행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지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지난 20일 오전, 자카르타 중심부 HI 로터리의 웰컴 기념비(Monumen Patung Selamat Datang)에서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레이놀드 E.P. 후타갈룽 중앙 자카르타 경찰서장에 따르면,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된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6시 5분부터 약 10분간 기념비 위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펼친 대형 현수막에는 "재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삶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 위기 대응하고, 생활고를 낮춰라" 등의 정부 비판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측은 이번 직접 행동이 정부의 미흡한 자연재해 및 산불 대응을 지적하고, 고물가로 인해 어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삶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제아니 시라이트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기후 정의 캠페인 담당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칼리만탄 지역의 산불 문제를 언급하며, "장기화된 스모그는 생태 위기가 시민의 건강과 일상 경제 활동에 어떻게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라보워-지브란 정부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눈을 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도네시아군(TNI), 중앙 자카르타 소방구조청 및 주정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현장에 구급차 6대를 대기시키고 활동가들의 안전한 하강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탈진 증세를 보인 여성 활동가 1명은 즉시 경찰청 산하 클리닉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다.

시위 직후 총 11명의 활동가가 메트로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반경제범죄수사국으로 연행됐다. 그린피스 측 법률 지원을 맡은 자카르타 법률지원센터(LBH)의 알리프 파우지 팀장은 "체포된 인원 중 구조 및 언론팀 소속 5명은 귀가 조치되었으며, 기념비에 올랐던 6명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건강검진과 경찰 및 공공경찰(PPNS)의 후속 조사를 위해 청사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자카르타 주지사와 경찰 당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면서도,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레이놀드 서장은 시위가 벌어진 HI 로터리 기념비가 2024년 주지사 결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 문화재임을 지적하며, 의사 표현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활동가들이 기념비 상단에 진입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레이놀드 서장은 법적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현재로서는 연행된 활동가 6명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독립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천연림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삼림 벌채 반대 등을 촉구하며 대중의 알권리를 위해 현수막 설치 등 직접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Instagram @greenpeaceid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붉은 고추·달걀 등 주요 식료품 가격 일제히 상승… 장바구니 부담 가중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국가 전략식품가격정보센터(PIHPS)의 10월 물가

10월 말을 앞두고 주요 식료품 물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가계와 외식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국가 전략식품가격정보센터(PIHPS)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WIB) 기준 붉은 고추 가격은 1kg당 11만7,700루피아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10만5,450루피아에서 12.63% 오른 수치다. 붉은 고추는 가정뿐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서 널리 소비되는 핵심 식재료인 만큼, 이번 가격 급등이 외식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추류 전반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꼬부라진 붉은 고추는 종전 8만8,100루피아에서 11만6,750루피아로 무려 32.29% 폭등했다. 굵은 붉은 고추 역시 1kg당 7만8,500루피아로 2.68% 상승했으며, 풋고추는 8만3,550루피아로 4.96% 올랐다.

양념 채소류 가격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적양파는 1kg당 4만5,200루피아로 기존(3만7,250루피아) 대비 21.51% 급등했으며, 마늘 또한 1kg당 4만1,500루피아를 기록해 7.1% 올랐다.

단백질 식품군 역시 대부분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서민 식재료인 달걀은 1kg당 3만950루피아로 종전(2만9,700루피아)보다 4.03% 상승했다. 생닭고기 가격은 1kg당 4만4,300루피아로 7.39% 올랐고, 1급 소고기는 1kg당 15만9,650루피아로 4.65% 상승했다. 반면, 2급 소고기 가격은 1kg당 13만7,700루피아로 4.18% 소폭 하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주식인 쌀 가격 역시 등급을 가리지 않고 오름세를 기록했다. 하급 쌀 I과 II는 각각 1만7,050루피아(14.43%↑), 1만6,450루피아(11.5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중급 쌀 I(1만7,750루피아, 6.61%↑)과 II(1만7,850루피아, 8.84%↑), 특급 쌀 I(1만8,800루피아, 4.74%↑)과 II(1만8,400루피아, 5.75%↑) 모두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이 외에도 설탕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료품 가격도 대체로 상승했다. 프리미엄 설탕은 1kg당 2만2,150루피아로 7.79% 올랐으며, 로컬 설탕도 2만250루피아로 종전(1만9,350루피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식용유의 경우 벌크 식용유는 1리터당 2만300루피아로 0.49% 소폭 하락했으나, 브랜드 식용유 I은 2만5,700루피아(5.11%↑), 브랜드 식용유 II는 2만4,000루피아(1.48%↑)로 각각 올랐다.

주요 기초 식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정부, 발리 유류 공급 비축량 15일분으로 확대… 수송선 4척 추가 투입

[덴파사르]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해상 운송 지연으로 유류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발리 지역의 유류 비축량을 기존 11일분에서 15일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망 조기 정상화를 위해 유류 운송 선박도 추가로 투입된다.

바흘릴 라하다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 19일 발리 덴파사르 상가란(Sanggaran) 유류 터미널에서 열린 유통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바흘릴 장관은 최근 자바섬에서 발리로 향하는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 연료 재고가 3~4일분가량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들의 섬' 발리 주요 주유소(SPBU)에는 연료를 공급받으려는 차량의 긴 대기 줄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현재 발리 내 주요 유류 거점인 상가란 저장고는 4~5일분, 망기스(Manggis) 터미널은 11일분 이상의 수용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영 정유사 PT 퍼르타미나(PT Pertamina)에 유통 가속화를 긴급 지시했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발리 노선에 투입되는 유류 운송 선박을 기존 3척에서 총 7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박 4척을 즉각 증편해 자바-발리 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바흘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발리의 연료 비축량은 11~12일분 수준이지만, 이를 15일분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수송 선박 확충을 통해 현지 주유소의 대기 행렬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5일 비축량'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바흘릴 장관은 "15일이라는 기간은 15일 후 재고가 소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환식(rolling storage)으로 지속 입고되는 저장 능력을 뜻한다"며 "국가 전체의 연료 비축량은 보조금 지원 휘발유(Pertalite) 기준 16~18일분, 기타 유종은 20일분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당국과 유관 기관의 총력 대응으로 발리 내 주요 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와 원활한 유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 홀짝제 등 일부 통행 규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방침이다.



주유소 SPBU Pertamina (Foto: Istimewa)

한편, 이번 수급 차질과 관련해 시몬 알로이시우스 만티리(Simon Aloysius Mantiri) 퍼르타미나 사장은 발리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운송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Z세대의 WFA 확산에 업무 공간 패러다임 전환… 가상 사무실·공유 오피스 수요 20.4%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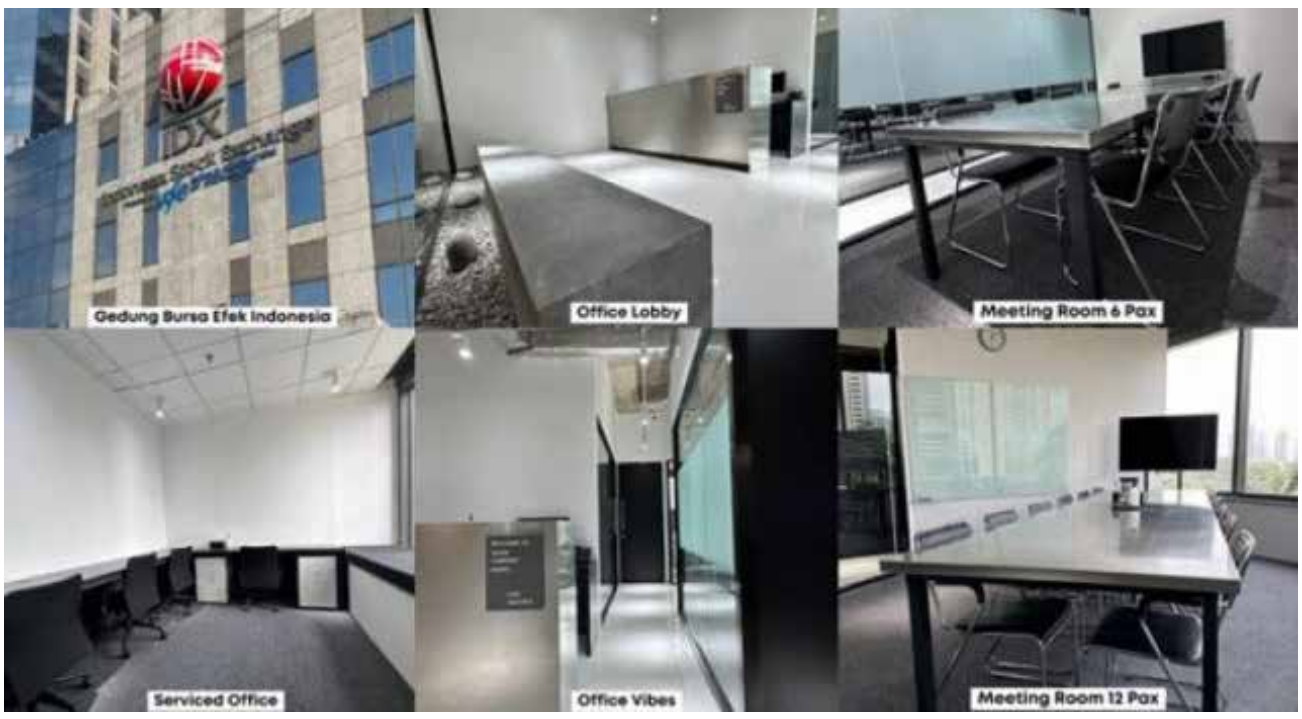
- 칸막이 책상 벗어나 '어디서나 일하는' 청년층 증가… 온디맨드 오피스 각광
- 텔콤 인도네시아, IoT · 디지털 인프라 결합해 운영 효율 극대화
- 인허가 · AI 발달 맞물려 소상공인 진입 활발… 정부, '위장 사업장' 차단 위한 제도 정비 착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고정된 책상과 칸막이(Cubicle)로 대변되던 전통적인 사무실 환경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근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원격 근무(WFA, Work From Anywhere)를 선호하는 Z세대와 청년 창업가들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 및 공유 오피스(Coworking Space) 등 유연한 형태의 업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워크스페이스 & 버추얼 오피스 서밋'에서는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대전환과 산업적 파급 효과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테구 아난타 위크라마(Teguh Ananta Wikrama) 기술·디지털전환 부회장은 "오늘날 젊은 세대는 과거의 정형화된 칸막이 좌석에서 벗어나 어디서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강력히 선호한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동성과 유기적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업무 시설의 공급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테구 부회장은 특히 인도네시아 공유오피스협회(PERJAKBI) 산하의 적격 가상 사무실 네트워크가 청년층의 사업 확장과 전문 네트워크 형성에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국적인 가상 사무실 인프라는 차세대 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최적의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구학적 배당 효과를 누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 청년층이 야말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Virtual office. (Foto Istimewa)

■ "소유·장기 임대 대신 유연성"… 온디맨드 수요 20% 이상 급증

업계 현장에서도 유연한 업무 공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국영 통신기업 PT 텔콤 인도네시아(PT Telkom Indonesia)의 아리 쿠르니아완(Ari Kurniawan) 디지털 제품 역량 운영 부사장은 글로벌 업무 공간 서비스 분석을 인용하며, "필요에 따라 단기 혹은 임시로 활용하는 유연한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율이 20.4%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 부사장은 "청년 사업가와 Z세대 근로자들은 리스크가 큰 전통적 장기 임대차 계약을 기피하고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유연성을 추구한다"며 "이에 따라 공유오피스는 단순한 물리적 집기(책상과 의자)를 대여하는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생태계 네트워크로 진입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지원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텔콤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국토 특성상 도서 지역까지의 저렴한 인터넷 보급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국적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공유 오피스에 접목해 사전 예약 시간에 맞춰 조명과 공조 장치가 구동되고 사용 만료 시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리 부사장은 기술이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에서 ▲운영 효율성 ▲사용자 경험 ▲사업 규모 확장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비용 절감 견인 속 기존 임대시장 '명암'… 사기 방지 대책 병행

가상 사무실은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마이크로·소상공인 및 중소기업(UMKM)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실물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도 법적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기초 행정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창업 초기 고정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적격 가상 사무실 주소는 정부의 온라인 단일 창구(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번호(NIB)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드위난토 룸포코(Dwinanto Rumpoko) 무역부 전자상거래·서비스무역 국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정 조율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자율 수행하는 개인용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에게 거대한 물리적 사무 인프라는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드위난토 국장은 이러한 변화가 과거 오프라인 소매점이 온라인 이커머스로 전환될 당시 겪었던 유통가 충격과 유사하게, 기존 대형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에 적지 않은 공실 및 침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실물 공간과 가상 공간의 수요가 공존하겠지만, 전통적 임대 시장의 체질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가상 사무실이 '유령회사'나 계약 사기 등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드위난토 국장은 실제로 해외 바이어가 가상 사무실 등록 업체에 계약금을 송금한 뒤 잠적당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의 실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적성(Tracea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역부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 사무실 서비스 제공 업체와 입주자 양측 모두에게 NIB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주거용 고시원 등이 무분별하게 사업자 주소지로 둔갑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 적격성 기준과 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역시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드위난토 국장은 "표준화 정책이 업계의 불필요한 운영 비용 상승이나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PERJAKBI 등 주요 협회와의 초점집단인터뷰(FGD)를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연무 확산세 둔화…DKI 주정부, '워터 미스트' 179대 가동 등 총력 대응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지난 10월 16일(금)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수도권 인근 지역을 뒤덮었던 산불·초지 화재(karhutla) 연무의 확산세가 점차 꺾이고 있다. 그러나 자카르타 수도특별주(DKI) 정부는 기상 변화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염 방지를 위한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치코 하킴 DKI 자카르타 주지사 사회소통 특별보좌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풍향 변화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비해 연무 확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도 "바람의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수도권(Jabodetabek) 일대의 대기 상태 변화에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연무 세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이다. 주정부는 현재 시내 전역 145개 건물에 설치된 179대의 '워터 미스트(미세 물안개 분사 시스템)' 장비를 가동해 상공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기상기후지질청(BMKG), 지역재난관리청(BPBD), 환경청,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대기질 측정소 및 배출 센서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대기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인공강우 조작 작전(OMC)을 추진하고, 초·중·고교의 원격수업(PJJ) 전환 등 비상 대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 역시 급성호흡기감염(ISPA) 등 대기오염 관련 질환자 급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시내 31개 병원, 44개 보건소, 292개 보건소 보조시설 등 총 367곳의 의료시설을 비상 대기 체제로 전환했다.

주정부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기저질환자 등 취약 계층의 실외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도 외출 시 N95 또는 KN95 등 고기능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코 특별보좌관은 "시민들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동요하지 말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 달라"며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하거나 '자카르타 시아가(Siaga)' 긴급 서비스(112)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LG CNS, 인니 국가 과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 구축 과정 및 성과 공개

- 분리된 기존 시스템 통합 및 잦은 규제 변화 대응이 최대 난제
- 초기 불안정 딛고 한국 본사 특별팀 파견해 조기 안정화 달성
- 기술 이전 통해 현지 자립 지원… 향후 AI 적용 가능성도 시사

대한민국 대표 IT 서비스 기업 LG CNS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의 차세대 과세행정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이하 코어택스) 구축 과정에서 직면했던 주요 과제와 성과를 공개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12억 3,000만 루피아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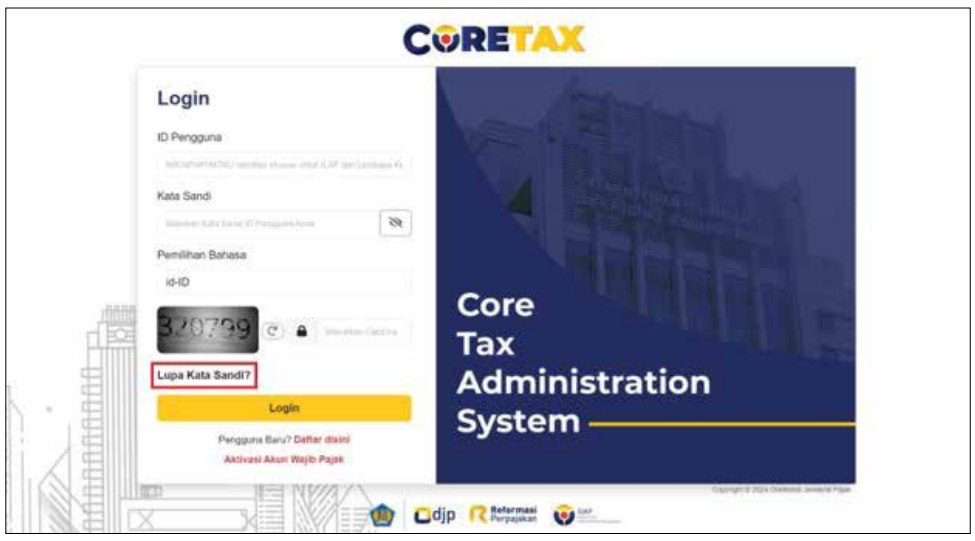
원만식 LG CNS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2026년 10월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을 통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수많은 세무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더불어,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개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한 현지 법령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시스템 개발의 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원 법인장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IT 구축을 넘어 '인도네시아 조세행정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LG CNS는 20여 년간 전자정부, 교통, 공공 IT 인프라 등 다수의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번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조세 개혁의 핵심 축으로, 2025년 1월부터 전국 단위로 정식 가동됐다.

출범 초기에는 대규모 시스템 전환에 따른 납세자 접속 지연 등 서비스 이용 차질로 일부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법인장은 대규모 IT 시스템 특성상 전면 도입 직후 안정화 단계는 불가피한 과정임을 인정했다. LG CNS는 문제 발생 즉시 한국 본사에서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급파, 현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원인 분석 및 최적화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다. 현재 코어택스는 초기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안착한 상태다.

계약상 LG CNS는 시스템의 일상 운영과 유지보수 대신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기술 이전을 통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의 자립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 법인장은 "세계은행 지원으로 개발된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SPAN) 역시 체계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인력이 성공적으로 독자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코어택스 역시 현지 역량 강화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LG CNS는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범죄정보센터(PIKNAS), 자카르타 LRT 역사 승강장 안전문(PSD), 버스 정보관리시스템(BIMS) 등 다양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현지 신뢰를 축적해 왔다.



Cortex (Foto: Istimewa)

아울러 그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 평가하며 "세무 시스템의 통합도와 기능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기술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코어택스 플랫폼에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향후 조세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AI 기술 도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달려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원만식 법인장은 "LG CNS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정부 및 AI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싱가포르 선임장관, 인니 대변인의 '산소 공급' 발언에 유감 표명…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인니 국민"

동남아시아 지역이 인도네시아발 산림·토지 화재로 인한 연무(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외교적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 소각을 일삼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K. 샨무감 싱가포르 선임장관은 최근 시아흐간다 나잉골란 인도네시아 정부소통청(Bakom) 수장이 한 발언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시아흐간다 수장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산림 화재로 인한 연무가 주변국으로 확산된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연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무가 없을 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산소를 공급한다"며 산림 화재를 인간의 잘못과 무관한 '자연현상'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샨무감 장관은 주변국 국민들이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역 전체가 인도네시아 내 규정 위반 기업들의 행위로 고통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국민들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해당 발언이 인도네시아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샨무감 장관은 이번 연무 사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싱가포르가 겪었던 심각한 연무 사태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이윤을 추구하며 불법 토지 소각을 감행하는 기업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무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책임자를 색출해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년 10월 14일, 팔랑카라이야시의 모습. 심각한 산림 및 토지 화재로 인해 도시의 하늘빛이 주황색으로 변했다.(Foto Tangkapan Layar Video Amatir)

한편, 샨무감 장관은 대변인의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위기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연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탄지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샨무감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산림 화재 진압을 위해 외국의 지원 수용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싱가포르 역시 지원을 제안했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생태적 기여도에 대한 논쟁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환경 오염과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의식을 묻고 있다고 분석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교과서 밖 세상을 배우다”… 자카르타한국학교 학생들, ‘명사 초청 멘토링’에 뜨거운 반응

- 9월부터 11월까지 고등부 대상 릴레이 강연 진행… AI · 태도 · 윤리 아우르는 실질적 배움의 장
- 재학생들,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 덜고 미래 사회 이끌어갈 가치관 정립하는 계기 돼”



JIKS,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나누는 2026 코리안데이(Korean Day) 성황리에 개최. 사진제공 JIKS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자카르타한국학교(교장 이문성, 이하 JIKS) 고등부 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진로 역량을 키우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JIKS가 9월부터 11월까지 10~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6학년도 명사 초청 멘토링 특강 시리즈’가 재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입시 위주의 학업 지식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 지혜와 통찰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에 깊이 몰입하며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강의 포문을 연 김경국 이사장의 ‘AI의 실질적 활용 방법과 사례’(9월 18일) 강연을 들은 한 12학년 학생은 “평소 AI 기술을 단순히 과제 검색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접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며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0월 9일 손동근 법인장의 ‘실력에 태도를 더하다-매너와 품격으로 만드는 나만의 경쟁력과 브랜드’ 강연은 입시와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주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재학생은 “학업 성적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과 태도가 왜 가장 강력한 개인 브랜드가 되는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16일 진행된 원만식 법인장의 ‘미래를 위한 IT 기본 상식 및 IT 윤리’ 특강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샀다. 강의를 경청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앞두고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JIKS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멘토링 여정은 11월에도 이어진다. 학생들은 향후 예정된 ▲신창근 법인장의 ‘나의 길은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10월 30일), ▲이지훈 경감의 ‘직업 너머, 사명을 묻다’(11월 6일), ▲최태립 회장의 ‘젊은이의 꿈과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11월 20일) 특강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관 특강을 기다리고 있는 11학년 학생은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현직 경찰관의 치열한 직업 윤리와 사회적 사명감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대된다”며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강의를 경청한 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의 철학과 비전을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학생 중심의 진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문성 JIKS 교장은 “학생들이 각 분야 멘토들의 경험과 혜안을 거울삼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종합)

“복잡한 세무·노무부터 자금 조달까지”…
인니 진출 한인기업, ‘찾아가는 경제·금융 설명회’에 높은 호응

- 찌까랑 · 땅그랑 거쳐 자카르타까지… 한인 제조업 및 중소기업 밀집지 3차례 순회 성료
- 참가 한인기업인들, “실무 적용 가능한 노동법 · 세법 강연 및 1:1 맞춤 상담에 갈증 해소”
- 대사관 · 주아세안대표부 · 중진공 등 민관 협력으로 현지 한인기업 경영 안정화 총력 지원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장 경영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인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원무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경제·금융 설명회’ 3차 행사를 지난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올해 총 3차례의 권역별 순회 설명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정보 부족과 전문 인력 채용난, 잦은 제도 변경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현지 한인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기관 중심의 일방향성 설명회를 탈피해 한인 기업들이 다수 밀집해 있는 산업 거점을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중진공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아세안 대표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 공동으로 10월 20일 「찾아가는 중소기업 경제·금융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찌까랑·땅그랑 거쳐 자카르타까지… 한인기업 122명 집결, 1:1 상담 34건 달해

올해 설명회는 지난 6월 주요 제조 한인기업들이 집중된 찌까랑(Cikarang)을 시작으로, 9월 서부 자바의 물류·제조 요충지인 땅그랑(Tangerang), 그리고 10월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전체 일정 동안 현지 한인기업 임직원 총 122명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으며, 사전에 접수된 실무 고충을 바탕으로 한 1:1 맞춤형 심층 상담도 34건이나 성사되는 등 현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자금 압박과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 무역보험, 해외진출보증, 환율 전망 및 환헤지 전략을 비롯해 현지 노동법·세무제도 등 한인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핵심 실무 정보를 전방위로 제공했다.

◆ “실무에 당장 도움”… 세무·노무 강연에 한인기업인 질문 쏟아져

마지막으로 열린 자카르타 3차 설명회에서는 2026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분석과 함께 주요 정책금융 지원제도, 현지 노무·세무 핵심 유의사항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무엇보다 이날 참가한 한인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은 현장 실무 강의에 집중됐다. 임수지 변호사가 발표한 ‘실무 노동법 적용 사례’와 김재훈 세무사가 분석한 ‘최근 세무 규제 동향 및 개정 세법 해설’ 세션에서는 강연 내내 필기와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한인 제조업체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노무 관리와 세법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변경 주기도 빨라 현장 운영 시 늘 불안감이 있었다”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짚어주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개별 상담 창구에서는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및 현지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1:1로 마주 앉아 각 기업이 처한 유동성 조달 애로, 거래 위험 관리, 세무 조사 대비책 등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

◆ 공관·정책금융·민간 전문가 원팀 지원… “한인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이번 설명회는 재외공관과 아세안 다자 외교 채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평가를 받는다.

정해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는 현장 격려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낯선 경영 환경 속에서 정보와 전문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설명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진출 한인기업들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소통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직 주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장 역시 “제조업 현장인 찌까랑과 땅그랑을 거쳐 자카르타까지 순회하며 현지 한인기업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원 수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대사관의 기업 지원 방향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들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편집부 종합)



중진공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열린 「찾아가는 중소기업 경제·금융 설명회」 단체사진. 2026.10.20


정해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시〉

물을 만드는 여자



문정희

딸아, 아무 데서나 서서 오줌을 누지 마라
푸른 나무 아래 앉아서 가만가만 누어라
아름다운 네 몸속의 강물이 따스한 리듬을 타고
흙 속에 스미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그 소리에 세상의 풀들이 무성히 자라고
네가 대지의 어머니가 되어 가는 소리를
때때로 편견처럼 완강한 바위에다
오줌을 갈겨주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의를 치르듯 조용히 치마를 걷어 올리고
보름달 탐스러운 네 하초를 대지에다 살짝 대어라
그러고는 쉬이 쉬이 네 몸속의 강물이
따스한 리듬을 타고 흙 속에 스밀 때
비로소 너와 대지가 한 몸이 되는 소리를 들어 보아라
푸른 생명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어 보아라
내 귀한 여자야.

시작 노트:

오늘 소개하는 시는 시가 가지는 소재 영역의 무한함을 제시한다. 언뜻 이 시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평범한 산문 시 같다. 그렇지만, 여자의 배설에 관련된 서정적 편견으로 단순하게 이해될 것이 염려되어 해설을 추가 하고자 한다. 여자가 물을 만들다니 우선 제목부터가 난감하다. 그러나 쉽게 터부시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목이야말로 여자의 생리적, 기능적 역할을 발가벗겨 놓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물이나 오줌의 비유는 여성 호르몬을 상징한다. 여성이 에스트로젠을 생성하고 사랑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류 문명의 지속성과 관련한다. 고로 “네가 대지의 어머니(생산)”가 되어 가는 결과로 귀착된다. 들추기 어려운 사유라 하더라도 주저하고 망설임 없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의 감각적 능력에 감탄이 절로 나올 뿐이다. 글: 김준규(시인)

한인동포 외국인 전용 건강검진 사업
국가별 도시별 글로벌 파트너 모집
검진예약 원스톱 플렛폼 '스캔포스트'

ScanPost 스캔포스트
Korea Medi Check Solutions & Services

www.scanpost.kr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글로벌 에이전시
- AI기반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최다 의료진
- 여행지 전국 주요도시 17개 지부에서 검진
- 외국인 전용 검진센터(인천.서울.원주.부산.제주)
- 내/외국인을 위한 동일 가격 패키지 제공
- 주요도시 국내 관광 여행 최고 패키지 완비

코리아메디패스 (Korea Medipass) |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SOFTZION | HanInPost 한인포스트 | JACY CLUB

@scanpost

koreascanpost@gmail.com / kakao ID : scanpost

www.scanpost.kr





